

충북 2분기 백신 접종 대상자 대폭 확대

31만7000명→33만2000여명... 교사·의료인 등 포함
노인시설 입소자·75세 이상 노인 '화이자 백신' 접종

4월부터 코로나19 예방 백신 2분기 접종이 시작되는 가운데 충북 지역 대상자는 학교·돌봄 종사자와 만성질환자 등으로 대폭 확대됐다. 충북도는 도내 2분기 접종 대상자가 애초 31만7000명에서 33만2000여명으로 늘어났다고 16일 밝혔다. 감염병에 취약한 고위험군 보호와 효율적 방역 관리를 위해 3분기 접종 대상자 중 일부를 2분기에 포함했기 때문이다. 접종 시기가 앞당겨진 대상자는 학교와 돌봄 공간 종사자 1만3954명이다. 세부적으로 특수교육 종사자와 유·초·중등 보건교사(815명), 어린이집

장애아전문 교직원·간호인력(103명),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 1~2학년 교사(1만3036명)이다. 64세 이하 만성질환자 3277명, 보건 의료인과 경찰·소방 등 사회필수인력 1만5903명도 포함됐다. 나머지는 기존 2분기 접종 대상자다. 65세 이상 요양병원·요양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1만2544명, 코로나19 취약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8422명, 65세 이상 노인 27만8346명 등이다. 요양병원은 23일부터, 요양시설은 30일부터 접종을 시작했다. 이들 중 노인시설 입소자(1107명)와 75세 이상 노인(12만6329명)은 예방

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을 맞는다. 이에 도는 청주 상당을 시작으로 청주 서원과 충주, 음성 등 접종센터 4곳을 먼저 개소하고 순차적으로 11개 시·군에 14곳까지 늘릴 계획이다. 나머지 대상자는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한다. 도내 580곳의 위탁의료기관, 보건소 등에서 이뤄진다. 도는 백신 유통과 보관에도 힘을 쏟고 있다. 지난 13일 충북에서 백신을 첫 패키지를 개봉해야 하는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충북의 한 일반병원에서 냉장고 조작 실수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보관 온도 범위가 이탈했다. 영상 2~8도에서 냉장 보관·유통과정에서 이를 벗어난 것이다. 도는 재발 방지를 위해 시·군과 합동점검반을 구성, 매일 위탁의료기관

등의 관리 실태를 점검할 방침이다. 8750만원의 예산을 들여 디지털 온도계를 구입한 뒤 위탁의료기관에 지원하기로 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올해 안에 도민 135만명 접종을 통한 집단면역 형성에 주력할 것"이라며 "백신 접종 이후에도 코로나19 종식 전까지 올바른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에 지속해서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지난달 26일부터 시작된 충북 도내 백신 접종은 16일 0시 기준으로 대상자 2만3555명 중 1만7096명이 접종을 마쳤다. 접종률은 72.6%다. 요양병원 5572명(89.8%), 요양시설 4428명(80.4%), 1차 대응요원 2190명(58.3%), 고위험 의료기관(병원급) 4803명(88.0%), 코로나19 치료병원 103명(3.9%)이다.

충북도, 도민 중심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시행

연간 1만2000여명 사회 서비스 제공·790여명 복지 일자리 창출

충북도는 10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역별 특성과 도민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도민 맞춤형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연간 1만2000여 명에게 34개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790여명의 복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중앙정부 주도의 일률적인 복지지원체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별 특성에 따라 서비스를 발굴·기획하고,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서비스 이용자는 제공받은 전자바우처(이용권)로 원하는 서비스 유형과 제공기관을 직접 선택하고, 소득에 따라 월 1~3만원 대의 본인 부담금으로 월 10~20만원대의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도에서 서비스 이용 대상 및 지역 특색을 반영해 개발·제공하는 사업은 아동의 정서 안정 및 건강관리, 역량 개발 등을 위한 인터넷 과외 등 아동친

소년 치유서비스(청주), 키즈드림 성장 프로그램(제천) 등이 있고 노인 맞춤형 신체·정신 케어 서비스로는 토닥토닥 어르신 마음건강 서비스(청주), 어르신 한방 건강지원 서비스(제천) 등이 있으며,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로는 맞춤형 동서비스(충주), 지적장애인 사회성 발달 심리지원서비스(진천) 등이 있다. 또한 근로자의 스트레스 해소 및 근무의욕고취를 위한 중소기업근로자통합지원서비스(진천) 등 지역 수요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도에서는 이러한 사회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제공기관 컨설팅, 멘토링 서비스, 제공인력 전문성 강화 교육, 제공기관 지도점검 등 제공기관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에도 노력하고 있다. 한편, 도내 각 시·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종류와 이용자 모집기간은 시·군별로 상이하므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도민은 각 시·군 누리집(홈페이지) 및 충북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누리집을 확인하면 된다.



김정희 충북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내빈들이 3일 충북도근로자종합복지관 개관식에 참여해 테이프 커팅을 하며 축하하고 있다.

충북도 근로자 종합복지관 개관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 근로자 재충전·문화힐링 공간 제공

충북도는 3일 도내 근로자 편의를 증진하고 활기찬 직장생활을 위한 복지

공간인 충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개관식을 가졌다. 이날 개관식은 김정희 충북도 행정부지사, 박문의 충북도의회 의장, 이장섭 국회의원을 비롯해 근로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고, 기념식, 테이프 커팅, 기념식수, 시설 관람 순으로 진행

했다. 2019년 12월 착공한 근로자종합복지관은 국비 20억과 도비 57억 등 총 77억 원을 투입해 지난해 12월 완공했다. 부지 3,396㎡에 연면적 2,565㎡ 규모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 건물로 지어졌고, 청주시 미평동에 자리 잡았다. 회의실, 노동상담실, 교양강좌실, 체력단련실 등 주요 시설을 갖췄고 한국노총 충북지역본부를 비롯한 14개 산별노조 사무실이 입주했다. 충북도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을 활용해 사용자에 각종 회의 및 교육 공간을 제공하고, 노동 상담, 문화·교양강좌 등 근로자와 지역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재충전 및 친목 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한기 충북도 일자리정책과장은 "복지관에서 더 많은 근로자와 지역민들이 다양한 혜택을 누리고, 삶을 재충전하는 기회를 갖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충북도·농협 충북본부 주택화재정보기 지원금 기증식

화재 취약계층 주거안정 확보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충북도는 8일 도지사 집무실에서 농협 충북본부와 화재 취약계층 주거 안정 확보를 위한 주택용 화재정보기 설치 지원금 기증식을 가졌다. 이날 기증식은 이시중 도사를 비롯해 장거리 소방본부장, 서덕문 농협 충북본부장, 노영수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이 참석했다. 농협 충북본부는 도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화재취약계층을 위해 새달라며 충북도에 2000만원을 기증했으며, 이는 약 600여 가구에 주택용 화재정보기와 소화기를 보급할 수 있는 액수이다.

도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기탁 형식으로 기부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 지원할 계획이다. 주택용 화재정보기는 화재 발생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경보음을 울려, 화재 사실을 조기에 알려주는 장치이다. 함께 지원하는 가정용 소화기는 화재 초기 누구나 손쉽게 화재를 진압할 수 있어서 소방차 한 대와 같은 기능을 한다. 서덕문 농협은 충북본부장은 "도민과 농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안전과 소중한 일상생활을 지키는데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농협 충북본부는 8일 화재 취약계층 주거 안정 확보를 위한 주택용 화재정보기 설치 지원금을 충북도에 기증했다.

충북도,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태아 1인 기준 100만원 내·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유·사산자

충북도는 임신과 출산 시 비장애인이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드는 여성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모성권을 보호하기 위해 여성장애인들의 출산비용을 지원한다. 도는 2019년에 40명 4천만원, 2020

년에는 45명 4천5백만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여성장애인 55명의 출산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5천5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지원대상은 소득에 관계없이 충청북도에 등록된 외국인 등록장애인을 포

함한 여성장애인이다.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 및 유산이나 사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 의사의 확인서 또는 소견서 첨부한 자)이다. 지원 금액은 태아 1인 기준 100만원 범위 내이며, 신청은 본인 또는 가족이 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도민은 신분증, 출생증명서·의료기관 발생 진단서, 여성장애인 명의 통장 사본을 지참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방문 신청 외에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정부24(www.gov.kr)에 접속해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김정기 충북도 노인장애인과장은 "여성 장애인 출산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직면하는 여성 장애인의 출산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도서출판 유한사

28505 청주시 청원구 대성로 285 (우암동 224-6)
285, Daeseong-ro, Cheongwon-gu, Cheongju-si, Chungcheongbuk-do, Korea

TEL: (043) 255-0504, 253-0504 FAX: (043) 222-0504
H.P: 010-9566-0504 E-mail: youhansa@hanmail.net

각종 교육 교재
책자제본·스프링제본
칼라복사·칼라출력
대형코팅·현수막출력
대형칼라흑백출력

복사-출력 및 제본의 명가

음성군, 청년 고용률 도내 1위·전국 6위

통계청 '2020 하반기 지역별 주요 고용지표' 집계 결과 역대급 투자유치·일자리 창출·경제 살리기 집중 '주요'

음성군이 통계청에서 지난 2월 발표한 '2020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주요 고용지표 집계결과'에서 청년 고용률(15~29세) 분야에 도내 1위, 전국 6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성과는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고, 국내외 어려운 경제상황과 지역여건 속

에서도 모든 역량을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살리기에 집중해 얻은 값진 결과다. 음성군의 OECD 기준(15~64세) 고용률은 73.3%로 도내 2위, 경제활동 참가율은 68.5%로 도내 1위를 차지했다. 특히, 15~29세 청년고용률은 산업단지 조성과 우량기업 유치

등 질 좋은 일자리 공급으로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도내 1위를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국 6위의 기록을 보여주고 있다. 군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기반을 위해 5대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과 에너지 공공기관과 우량기업을 대거 유치해 신산업 선도를 하고 있다. 지난해는 2조원이 넘는 역대 최대 투자 유치로 5천300명에 달

하는 고용창출의 효과를 거둔 바 있다. 또 이차전지·신재생에너지·물류 우량기업은 신에너지에 이끌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군은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 이·전직자, 저소득층 등의 고용안정과 생계유지를 위한 재정일자리 1만2천754명에 523억8천500원을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에 투입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15일 출범한 제천복지재단 장병호 이사장과 이상천 시장이 재단 직원들과 단체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15일 재단법인 제천복지재단 '출범'

지역 특성 반영 맞춤형 정책 연구·복지 비전 제시

제천시 "정관·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경제적 부담 줄여 출산 장려... 100만원 한도 내 지원

제천시는 아이를 갖기 원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장려를 위해 정관·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시는 피임시술자 중 임신을 목적으로 복원시술을 희망하는 대

제천시의 복지비전과 사회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한 재단법인 제천복지재단이 지난 15일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재단은 장병호 이사장과 사무국장, '경영지원팀', '복지협력팀'

상자에게 시술비를 지원한다. 이 사업은 혼인 부부(사실혼 포함)로서 정관·난관복원 시술일 기준으로 제천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시술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구비서류는 정관·난관수술의 과거력을 증명할 수 있는 의사견서 또는 진단서와 가족관계증

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다자녀 임신을 장려하고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할 것으로 기대하며,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사업과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보건소 모자건강팀(043-641-3204)으로 문의하면 된다.

청주시-우체국 '만원의 행복보험' MOU

청주시가 지난달 25일 청주우체국과 '만원의 행복보험'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만원의 행복보험'은 청주우체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공익형 상해보험으로 저소득층 개별계약자가 1년 간 보험료 1만원을 납입하면 우체국에서 나머지 보험료를 공익자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청주시는 후원금 6천만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보험가입비 1만원을 지원하고 청주우체국은 나머지 보험료를 공익자금으로 지원하게 된다. 이에 따라 열악한 환경에도 비싼 보험료 때문에 경제적 문제로 보험가입이 어려

워 보험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많은 수급자들이 보험 부담금 없이 입원·의료비 등의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만원의 행복보험이 재해위험으로부터 시민들이 안심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지역 내 저소득층에 관심을 갖고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청주우체국에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한태희 청주우체국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사회의 어려운 분들을 위한 공익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청주시와 청주우체국이 '만원의 행복보험' 지원 협약을 체결한 후 한범덕 시장, 한태희 국장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충북사회복지신문

발행인 김 영 석 사회복지 출판·홍보위원장 박 상 준 (28583)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3층 전화 : 043-234-0840 FAX : 043-234-0849 E-mail : cbssn@naver.com 홈페이지 : www.cwin.or.kr

진천군 '통합돌봄사업' 대상 확대한다

장애인·정신질환자까지 포함... 올해 23억원 투입

진천군은 기존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서비스 대상 범위를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군은 애초 지역 어르신만을 대상으로 운영했던 통합돌봄사업을 지난해 보건복지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장애인과 정신질환자까지 확대한 '융합형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으로 개편·운영한다. 2019년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에 선정돼 2년간 42억6000만원을 들여 생계지원형 통합돌봄

모델을 구축해 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군은 지난해 공모에도 선정되면서 6억원을 추가로 확보해 올해에만 23억원을 투입한다. 군은 한 단계 진화한 융합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난 2일 지역 정신의료기관인 '늘푸른 정신건강의학과의원'과 업무협약을 했다. 이번 협약으로 도움이 필요한 정신질환자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로

했다. 선정 대상자에게는 읍·면 공무원, 전담간호사, 정신건강전문요원이 방문해 약물 관리, 정신건강 상담, 재활 서비스를 제공한다. 필요하면 협력병원 의사와 케어 회의를 열어 연속성 있는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송기섭 진천군수는 "사업 대상 범위를 확대해 더욱 알찬 체계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상자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충북북부 교육가족 정신건강 책임집니다"

마음건강센터 북부지원팀 개소 전문인력 2명 상주... 체계적 지원

충주교육지원청 마음건강증진센터 북부지원팀이 16일 증축공사를 마치고 문을 열었다. 충주교육지원청은 이날 대회 의실과 센터동에서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마음건강증진센터 북부지원팀 공식 개소식을 가졌다. 개소식에는 김병우 충북도교육감과 서울중앙대병원 관계자, 충주·제천·단양 교육장 등이 참석해 도내 북부 교육가족들의 심리적 어려움을 지원할 지원팀 개소를 축하했다. 지원팀은 올해 학생 정신건강 증진 강화사업에 예산 1억5000만원을 확보하고, 정신건강 전문가 학교 방문을 통해 심리방역 지원에 매진할 계획이다. 또 치료비 지원 확대와 정신건강 전문인력 컨설팅, 찾아가는 마음치유 및 생명존중교육, 교



충북북부(충주,제천,단양)지역 교육가족들의 정신건강과 마음건강을 위한 마음건강증진센터 북부지원팀이 문을 열었다.

직원 심신 회복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한다. 충주교육지원청은 지난해 3월 행복교육센터 1층에 지원팀을 임시 개소해 지역별 균형을 맞춘 정신건강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했다. 이후 정신과 전문의 상담과 의

료기관 치료비 지원 등 도내 북부 교육가족들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심리방역에 꾸준히 노력해왔다. 특히 서울중앙대병원과 협약을 맺어 올해부터는 2명의 정신과 전문의가 체계적으로 심리방역활동을 지원하게 됐다.

청주시보건소, 신생아 난청 검사·보청기 지원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다자녀 가구는 제한 없어

청주시 보건소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돕기 위한 '난청검사 및 보청기지원사업'을 추진한다. 4월 시보건소에 따르면 신생아 난청 1-3-6원칙은 생후 1개월 이내에 신생아 청각신경검사를 실시하고, 재검사는 생후 3개월 이내에 난청 확진검사를 시행해 난청으로 진단받은 경우 생후 6개월 이내 보청기와 난청아재

활치료를 시작한다. 선천성 난청검사와 보청기의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유아이며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경우 소득수준 관계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난청 선별검사는 입원 검사 시 무료이며, 외래를 통해 건강보험이 적용된 검사를 실시한 경우 본인부담금에 대해 보건소로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만 3세 미만의 영유아가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각 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 양측 보청기를 개당 131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지난 해까지 영유아 1명당 1개의 보청기 지원에서 올해 양측 보청기 지원으로 지원범위가 확대됐다. 보건소 관계자는 "선천성 난청은 언어 및 학습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선별검사를 통한 조기발견과 재활치료가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2월 푸드뱅크·푸드마켓 식품기부자 명단

- 푸드뱅크는 소외계층을 위한 식품 나눔 은행입니다 -

- 충북광역푸드뱅크 (주)에스엔푸드, CJ신선 진천센터, GS리테일 발안물류센터, 롯데칠성 광명센터, CJ나눔 계룡센터, CJ수원반포센터, 대상 양지센터, 대상 영인저온센터,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충북농협, 충북낙농농협, 나눔축산운동본부, 중원랜드, 한우협회, (주)파나산, (주)대승푸드, 롯데푸드, 체리부루, CJ우동(충청점), 송림푸드, 청주우동, 에버리치, CJ신선 덕평센터, 롯데칠성 대전센터, 중앙제관(주), 롯데네슬레 청주공장, LG생활건강, (주)엘로드림, 송림푸드, 대상 덕평센터, 시아스 청주공장, 영농법인 무지개농장, (주)더불어, (주)피아씨푸드, (주)금강B&F, KGC인삼공사 충북지점, 투샘플레이스, 천양식품, 라온에스, 주식회사 지지코리아
- 청주시농산물푸드뱅크 청주농산물, 멜리스(분평동), 백설우동, 홀플라스익스플러스 좋은아침(가경점), 파리바게뜨(개신점), 파리바게뜨(북대점), 비누이투, 좋은아침(북대점), 두레주르(비하계동점), 단킨도너츠(강서점), 팜스팜스, 롤링핀(지웰시티점), 이츠굿베이커리, 금관마트, 동정주오뚜기, 초이스베이커리, 플로리안, 좋은아침(성안점), 좋은아침(성화점), 파리바게뜨(가경대우), 정도너츠, 바로구운빵, 도담영농조합법인, 청풍명월, 명성물류, 머거바식품, 자연솔푸드, 푸드글로벌, 한솔, 비전상사, 태성우산, 도담, 등고개농장, 제훈우동, 장수우동, 오뚜기대리점, 중앙제관(주)
- 청주제일푸드뱅크 청주제일교회, 한기장복지재단, (주)한백식품, 두레주르 율랑점
- 청주구세군푸드뱅크 주식회사 시아스, 두레주르 금천점, 파리바게뜨 분평점, 한솔 제2농장, 공천떡점, 금관할인마트, 해신수산, 두레주르 금천뉴타운, 따베오 베이커리, 행복8떡집, 유산편백, 파리바게뜨 청주제일점, 떡이랑, 두레주르 청주용정점, 파리바게뜨 청주용정점, 영농조합법인 희여울, 홀프라스 익스프레스 청주용정점, 천명영농조합법인, 정수기획(홍성사), (주)월드이십일메이커, 자연애원합농조합법인, 천명, 김가네 생고기정육점, 파리바게뜨 청주제일점, 주주랜드, 서울우유지소, 시아스유통, 두레주르 분평점, 목행청과, 금관할인마트 율랑점, 청주특대(주), 무위에뚜와
- 청원기초푸드뱅크 (주)우리농, 산과들F&C, 파리바게뜨 오창중앙점
- 증평군푸드뱅크 거림가게, GS슈퍼 증평점, 케익하우스, 금호숯불갈비, 서산식품, 좋은아침 율랑점, 파리바게뜨 내수점, 한그루식품, 오뚜기, 단비상사, 단킨도너츠 증평점, 멜리컨 증평점, 그린우동, GS25 증평대리점
- 괴산군기초푸드뱅크 진미식품, 괴산잡곡, 신선노포, 신선촌, 윤산식품, 제중당약국, 풀무원, 서미숙, 유인숙, 장국희, 따베오베이커리, 두레주르괴산점, 파리바게뜨괴산점, 매키로통상, 미미식품, 한살림축산식품, 주성베이커리
- 옥천군푸드뱅크 두레주르 엘마트점, 구가네 농이보강, 조마루 갑지랑, 독도가든, 행운목, 미개(한정식), 이기화로, 옥천첨단토탈리플링, (주)한일우드
- 영동나눔푸드뱅크 두레주르(김홍옥), (주)번영육가공
- 보은군기초푸드뱅크 서울우유(보은점), (주)서울향료, CJ나눔재단, 롯데칠성(청주, 충주, 대전, 오포, 안성), GS리테일, LG생활건강, 대상(일죽센터), 대전중앙물류센터
- 음성군푸드뱅크 CJ푸드빌, 꽃피는아침마을, (주)다농원, 삼농농장, 영양떡방앗간, 김이박부대찌개, 단킨도너츠(금양)(주)이가지면면, (주)후드원, 김점철소머리국밥, (주)맑은해오름, (주)풀무원, (주)맑은식품
- 진천군푸드뱅크 삼진푸드, 두레주르(성모병원점), 면사랑, 체리부루, 조인, 묵우촌, 동원(이천,백안), 삼육두유, 파리바게뜨(덕신점)
- 진천나눔과기쁨푸드뱅크 파르바게트 진천장관점, 태남 메디스코, 신도식품, 윤지영, 김정식, 리브가왕만두편백, 김수향, 델리칸(이월점), 에스엔푸드, 자혜식품, 명가떡집, CJ푸드빌, 해마푸드서비스, 파스쿠찌, 행
- 복한 떡집, 이사식품, 명가떡집, 생계진식품, 맑은해오름
- 충주기초푸드뱅크 고인물식품, 대하우동, 델리칸충주교현점, 떡보의하루, 두레주르 주덕점, 롯데제과(주)충주영업소, 삼성청과유통, 삼일상회, 서울우유지소충주대리점, 유원우동, 육사청과, 은혜청과, (주)미림농산, CS코리아, 지미원에프앤지, 충주청과, 하나로베이커리(충주점), 한아름청과
- 제천시푸드뱅크 건국우업, 두리메리케, 롯데제과 제천, 박달재사, 푸드, 문우통, 씨알푸드, 오뚜기 제천점, 오뚜기, 대상김치, 푸른촌, 풀이민, 365할인마트, 크리스프푸드제천중앙점, 호수상사
- 단양나눔과기쁨기초푸드뱅크 CJ나눔재단, 롯데칠성(청주, 충주, 대전, 오포, 안성), GS리테일, LG생활건강, 대상(일죽센터), 광주파리크라사업체, 신선초, 하림, 맑은식품, 한돈, 섀넬이푸드, 대상청정원

충북 주민 생활만족도 '전국 최하위'

리얼미터 조사결과 대전 5위·충남 9위·세종 14위 시·도지사 긍정평가 충청권 9~12위 '중하위권'

충북 주민의 생활만족도가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권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가 지난 8일 발표한 전국 17개 시·도 주민 생활만족도 평가 조사에서 충북 주민의 생활만족도는 50.2%로, 최하위 울산(46.8%)에 이어 16위에 그쳤다. 충청권에서는 대전의 만족도가 57.8%로, 전국 평균 55.3%를 유일하게 넘겼다. 반면 충북에 이어 세종(14위)은

51.8%, 충남(9위) 54.7%로 전국 평균에도 못 미쳤다. 주민생활 만족도 1위는 전남(63.9%)이고 경기(63.6%) 2위, 제주(59.3%)가 3위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작년 12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만7천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RDD(임의전화걸기)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전국 ±0.8%p, 시·도별 ±3.1%p(95%신뢰수준)에 응답률은 4.9%였다.

광역단체장 긍정평가에서는 충청권 4개 광역단체장들이 9~12위의 중하위권에 머물렀다. 권한대행 체제인 서울과 부산을 제외한 15개 광역단체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여론조사에서 양승조 충남지사(45.8%) 9위, 이시종 충북지사(45.1%) 10위, 허태정 대전시장(43.5%) 11위, 이춘희 세종시장(41.0%) 12위 순으로 4명 모두 전국 평균(47.2%)보다 저조했다. 이번 조사 역시 리얼미터가 작년 12월 전국 15개 시도의 만 18세 이상 남녀 1만5천명을 유무선 RDD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와 응답률은 주민 생활만족도 조사와 같다.

전국 17개 교육감 긍정평가에서 충청권 교육감들은 광역단체장에 비해 순위에서는 더 높았지만 긍정평가 수치는 낮았다. 리얼미터에 따르면 7위 충북 김병우(39.7%), 8위 대전 설동호(39.2%), 9위 충남 김지철(38.4%), 12위 세종 최교진(36.9%) 교육감 순으로 집계됐다. 김병우 충북교육감의 긍정평가가 전국 평균(39.7%)과 동일했고, 나머지 교육감 3명은 평균에 미달했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https://www.nesd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동군 고령자 주택·치매전담 요양시설 건립

2022년 10·12월 각각 준공... 주민 삶의 질 향상 기대

초고령 사회로 들어선 영동군이 노인복지 등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거·복지시설을 건립한다. 군은 공공임대주택 보급 사업의 하나로 '고령자 복지 주택' 208가구를 공급한다. 복지주택은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을 위한 임대 주택이다. 전용면적 26㎡(168제), 36㎡(40제)로 지상 15층 규모로 2개 동을 짓는다. 경로당, 식당, 복욕탕, 체력단련실, 다목적강당 등 사회복지시설도 들어선다.

사업비는 308억원 규모로 군비 40억원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68억원을 분담한다. LH는 복지주택 건설과 운영·관리를 한다. 군은 용지를 제공하고 외부기반 시설, 복지관련 내부시설 설치와 운영·관리한다. 2022년 10월 준공 예정인 복지주택은 그해 4월 LH청약센터를 통해 입주자모집 공고한다. 입주하는 12월 시작된다. 군은 치매환자를 위한 시설도 확충한다. 영동읍 설계리 일대에 87억원을 들여 '치매 전담형 요양

시설'을 설치한다. 오는 6월 공사에 들어가 내년 12월 준공한다. 지역 노인의 체력증진과 여가 선용을 위해 6억원을 들여 오는 6월까지 전천후게이트볼장 12곳도 보수한다. 노인건강 체육시설 현대화사업에 따라 전천후 게이트볼장에 냉난방기를 설치했다. 2월 말 기준 영동군 인구는 4만7023명이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이 1만5145명(32.2%)이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 이상을 차지하면서 군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군 관계자는 "제2의 고령자 복지주택, 공공실버주택 등 맞춤형 주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기억 나눔터에서 치매 떨치세요"

옥천군치매안심센터 청산분소 개소... 음악치료 등 운영



옥천군은 12일 치매안심센터 청산분소 '기억나눔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나섰다.

옥천군은 전국적으로 노령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치매로부터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 조성을 위해 두 팔을 걷었다. 군은 옥천읍 소재 치매안심센터로부터 접근성이 취약한 청성·청산면 지역주민을 위한 치매안심센터 청산분소 '기억나눔터'를 개소해 치매관리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기존 청산 보건지소를 리모델링한 '기억나눔터'는 지난 12일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돌입했다.

이날 개소한 '기억나눔터'는 2013년 준공한 청산보건지소를 리모델링한 시설로 연면적 433.83㎡ 규모의 2층 건물이다. 군은 운영을 위해 청산보건지소의 기존 치과진료실, 물리치료실을 새단장 했으며, 간호사 1명, 작업치료사 1명을 배치했다. 만6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 상담과 조기검진(선별·진단검사), 복약지도 등을 한다. 음악치료, 미술치료, 운동치료, 인지치료, 인지강화교실, 치매예방교실, 치매가족교실, 자조모임 등을 운영한다. 인지교구를 대여하고 치매 가족을 포함한 다양한 돌봄 서비스도 제공한다.

괴산군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균형위 공모 2건 선정... 청천면 농바우·불정면 원운동 마을

괴산군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주관한 '2021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공모사업'에 2개 사업이 선정돼 총사업비 43억원(국비 30억원 포함)을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마을은 청천면 삼송리 농바우마을, 불정면 웅동리 원운동마을로 충북에서는 괴

산군만 2곳이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로써 괴산군은 2019년 장연면 추정마을(22억원), 감물면 구무정마을(17억원), 2020년 청천면 대전마을(23억원), 청천면 금평마을(22억원), 사리면 도촌마을(15억원)에 이어 올해 두 곳이 더 선정되면서 도내 최다인 총 7

개 마을에서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비율이 높고, 주거환경과 안전·생활 인프라가 전반적으로 취약한 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해 행복지수를 높이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군은 오는 2024년까지 신규선정마을을 대상으로 빈집 철거, 슬레이트지붕 개량, 집수리, 마을안길 정비, 하수관로 정비, 재래식

화장실 정비 등 생활·위생 인프라 정비와 함께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그 관계자는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선정된 마을 주민들의 노력 없이는 괴산군에서 2개소가 모두 선정되지는 못했을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다소 열악했던 마을의 생활여건을 크게 개선해 주민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사업 대상지를 적극 발굴해 취약지역의 생활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첫 종합평가

2020년 돌봄기본·종합 등 6개 사업 통합 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기존 돌봄기본, 돌봄종합 등 6개 노인돌봄 사업을 통합하여 2020년 1월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노인의 욕구중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오는 4월 보건복지부에서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전달체계 및 서비스 등에 대한 부분을 점검하고 분석하여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해 2020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합평가를 첫 시행한다. 지난해 10월, '2020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중간평가'를 실시했으나 3개월(7~9월)로만 한정된 평가 및 정량 지표 중심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4월에 실시되는 '2020년 종합평가'에서는 정성 평가를 포함해 2020년 전체에

대한 온전한 평가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은 맞춤형 서비스 제공, 사업관리 등 전반적인 4가지 영역과 20개 항목으로 평가를 받고 특화서비스를 수행하는 수행기관은 추가로 1개 영역·2개 항목, 지자체는 2가지 영역·8개 항목으로 평가를 받게 된다.



Jeongmyeongbukji 재단이 올해 우수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선정된 기관을 대상으로 지원증서를 전달했다.

Jeongmyeongbukji 재단, 7개 기관 운영비 지원

우수프로그램 발굴... 노인 우울예방교육 등 1800만원

Jeongmyeongbukji 재단은 19일 재단회의실에서 '2021년도 Jeongmyeongbukji 재단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지원 증서 전달식을 열었다.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은 지역 복지시설의 우수프로그램 발굴을 위해 Jeongmyeongbukji 재단에서

2018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이다. 올해는 공모절차를 거쳐 7개 복지기관을 선정하고 1천800만 원을 지원한다. 선정된 복지기관은 청소년 영역 아동아리 양성교육, 노인 우울예방교육, 발달장애인 생활금융교

육, 학령기 아동 독서발달지원 등 시설별, 계층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홍식 이사장은 "앞으로도 Jeongmyeongbukji 재단은 자생성과 지속가능성을 가진 양질의 복지프로그램을 지원해 Jeongmyeongbukji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수교육대상자·발달장애인 지원한다

보은교육지원청-충북장애인부모연대 보은지회 활성화 협약



보은교육지원청, 충북장애인부모연대 보은지회 관계자들이 발달장애인 지원 협약을 맺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보은교육지원청은 16일 충북 장애인부모연대 보은지회와 보은교육지원청 교육장실에서 특

수교육대상자 및 발달장애인 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은 보은교육지원청 교육장(연규영)과 충북장애인부모연대 보은지회장(장은영) 등 양측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당일 두 기관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특수교육대상자 및 발달장애인 지원 활성화를 위한 협력 체계 구축 및 교육 정보 제공에 대한 협력을 약속했다. 연규영 교육장은 "이번 MOU를 통해 보은군 소속의 특수교육대상자와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교육지원에 있어 시너지가 발휘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장은영 지회장은 "특수교육대상자 및 발달장애인들의 인권과 교육권이 전반적으로 향상되는데 우리도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충북사회복지신문

광고 게재 안내

충북사회복지신문은 사회복지기관 및 관련단체, 시민단체, 병원, 학교, 자원봉사자와 후원자, 일반시민 등 전국으로 배포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이슈를 효과적으로 알리고 싶은 분은 적극적으로 충북사회복지신문을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면	크 기	배색	금액(원)
1면	4단 (360mm×138mm)	컬러	300,000
	제호 옆 돌출 (67mm×33mm) (3개월)	컬러	100,000
2면~7면	4단 (360mm×138mm)	흑백	150,000
8면	4단 (360mm×138mm)	컬러	200,000

게재 개월 및 기타 상황에 따라 협의 조정 가능

문의 충북사회복지협의회 김솔지 대리 (T.043-234-0840~2)

“올해 여성 일자리 78만여개 창출”

코로나 영향 여성 고용 충격 완화... 돌봄 휴가비 지원 연장

정부가 지난 4일 코로나19로 인한 여성 고용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하고 미래 노동시장을 준비하기 위한 '코로나19 여성 고용 위기 회복대책'을 발표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로 그동안 상승세를 보이던 여성 고용률이 2020년 56.7%로 전년 대비 1.1%가 감소하면서 심각한 타격이 발생한 것이다.

특히 여성 고용률에서 큰 비중을 차지해 온 30~50대 여성 취업자 수와 고용률 감소가 전체 여성 평균의 감소폭 보다 높은 비율을 보이며 여성 고용위기가 더욱 크게 체감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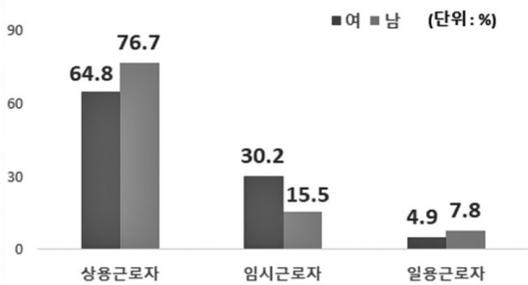
코로나19 고용충격이 여성 고용위기로 직결된 것은 여성 일자

리의 열악한 근로조건, 노동시장 내 성별격차, 여성 다수가 대면서비스산업에 종사하는 성별업종 분리 등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더불어 휴가와 휴원 등 돌봄공백 상황에서 돌봄 책임이 주로 여성에게 전가되면서 여성이 일을 포기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비대면 디지털 중심으로 전환되는 산업현장의 빠른 변화 속에서 관련 여성 전공자 비중이 적은 것 또한 여성 일자리 확대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금이 근본적인 여성일자리 체질 개선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고 대면서비스업종 위주에서 전문 기술기반 업종으로 여성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2020년 성별 종사자 지위별 임금근로자 비중>



핵심정책을 추진하고 시급한 여성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또한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일자리 회복을 위해 즉각적으로 고용효과를 낼 수

있는 마중물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공공·민간부문 여성일자리 확대하고, 노동시장에서 이탈된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맞춤형 취업·창업 지원을 강화한다.

노점상·대학생 포함... 생계위기 가구에 80만원 지급

올해 첫 추정... '2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발표

정부가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코로나19로 생계가 곤란해진 근로빈곤층 80만 가구에 노점상, 대학생 등에게 한시적으로 생계지원금을 준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추경(2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에는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6000억원과 긴급복지·아이돌봄 지원금 1400억원이 포함됐다.

정부는 소득감소 등으로 한계에 몰린 근로 빈곤층 80만 가구에

1회성 한시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 가구당 지원액은 50만원으로 총 4066억원이 들어간다. 지방자치단체 등이 관리하는 노점상 4만곳에 대해서는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1곳당 50만원을 지원해 총 200억원을 쓰고, 미관리 생계 곤란 노점상은 한시생계지원금을 통해 지원한다.

학부모 실직 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1만명에게도 5개월간 250만원의 특별 근로장

학금을 지급한다. 소요 예산은 250억원이다.

정부는 긴급복지 지원요건 한시적 완화 조치도 오는 6월까지 3개월 더 연장한다. 이에 따라 오는 2분기에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에 915억원을 지급한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주요 소득자의 사망·가출, 화재, 휴업, 폐업 등 위기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완화된 기준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면 재산이 대도시 거주 가

구는 3억5000만원 이하, 중소도시는 2억원 이하, 농어촌은 1억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기존 제도상으로는 동일한 위기 사유 또는 동일한 상병인 경우 2년 이내에는 긴급복지를 재지원할 수 없다. 하지만 재지원 요건 완화로 오는 6월까지 생계유지수령 후 3개월이 지나면 긴급복지는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맞벌이·한부모 등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의 35%를 대신 부담한다. 이를 통해 2분기에 4만4000가구에 514억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 방역인력 3천명에 대해서는 24시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요금의 20%도 추가로 지원한다.

아동학대 연내 2회 이상 신고 시 '즉각 분리'

30일부터 시행... '공동업무지침' 마련해 혼선 최소화

재학대 발생 우려가 있어 아동과 부모를 즉시 분리해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즉각 분리'에 대한 최종 판단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맡는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즉각 분리제도'가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경찰의 역할과 책임 명확히 하는 공동업무수행 지침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침안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112로 일원화한다. 상담은 보건복지 상담센터(129)와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전문기

관에서 담당하되 신고 사항은 서로 통보한다. 야간과 휴일에 들어오는 신고에 대해서는 경찰이 현장의 역할과 책임 명확히 하는 공동업무수행 지침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아동에게 응급조치나 즉각분리가 필요한지 여부는 전담 공무원과 경찰이 협의해 결정하되, 최종 판단은 전담공무원이 내린다.

생후 16개월 입양아가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 등에서 드러난 초기 대응 부실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결정 주체를 명확히 한 것이다.

전담 공무원이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라면 의료인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통합사례회의를 개최하도록 했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작년 10월부터 시·군·구에 배치돼 아동학대 신고접수·현장조사·응급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즉각분리 제도는 지자체가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조치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아동일시보호시설·학대피해아동쉼터에 입소시키거나, 적합한 위탁 가정에 일시 보호하는 제도다.

1년에 2차례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한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 피해가 의심되

고 재학대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자가 아동에게 답변을 못 하게 하거나 거짓 답변을 유도하는 경우 등에 즉각 분리가 이뤄진다.

지자체는 즉각 분리 후 7일 이내에 가정환경, 학대 행위(의심)자, 주변인을 조사해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고 보호조치 등을 결정해야 한다.

정부는 즉각분리 시행 후 아동을 보호할 인프라를 확보 중이다. 2세 이하의 피해 아동을 보호할 가정 200곳을 모집 중으로, 보호가정의 양육자는 25세 이상으로 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이어야 하고 안정적인 소득 등이 있으면서 관련 자격 기준을 갖춰야 한다. 학대 피해 아동쉼터는 작년 76곳에서 올해 최소 105곳으로 늘어난다. 시설이 확충되면 아동 700여명이 동시에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요양병원·시설 면회기준 개선된다

관리 어려움·공간 부족 등 이유로 면회 제한 허용 안돼 임종 시기 등 필요성 인정 땀 '접촉 면회'도 허용 계획 면회객은 보호구 착용·코로나 검사 음성 확인서 필수

코로나19 전파 위험으로 인해 그동안 제한됐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접촉면회가 9일부터 다시 부분적으로 가능해졌다.

다만 대상은 임종을 앞둔 환자나 중증환자 등으로 한정되고, 면회객은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고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음성' 확인을 받아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요양병원·요양시설 면회기준 지침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새 지침에 따르면 접촉 면회 대상자는 임종 시기, 환자나 입소자의 의식불명 및 이에 준하

는 중증환자, 주치의가 환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면회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다.

면회객 가운데 면회 당일 24시간 이내 받은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확인서나 음성 결과 통보 문자가 있는 경우, 또 현장에서 신속항원검사로 음성이 확인된 경우만 접촉 면회를 할 수 있다.

또 접촉 면회는 1인실 또는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서 이뤄지며, 면회객은 K94(또는 N95) 마스크와 일회용 방수성 긴 팔가운과 장갑,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신발커버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중대본 관계자는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은 감염에 취약한 고령환자가 많이 계신 만큼 방문객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비접촉 방문 면회에 대한 기준도 구체화했다.

비접촉 방문 면회의 경우 환자가 잘되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한 뒤 칸막이를 설치한 곳에 서만 허용된다.

또 사전예약제 운영되며 현장에서 면회객에 대해 발열·호흡기 증상을 체크하고 신체접촉이나 음식 섭취는 허용하지 않는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지침에 따르면 요양병원은 2단계 이하, 요양시설은 2.5단계 이하일 경우 각각 비접촉 방문 면회가 허용된다.

어린이집 통학버스 하차관리 사고 책임 강화

영유아 사망·중상해 등 사고 발생시 시설폐쇄 가능 다음 달 28일까지 입법예고... 보육료 부정수급 조치도

정부는 통학버스 하차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영유아를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힌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시설폐쇄 명령 등을 내릴 수 있게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했다. 또 보육료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거나 보육 목적 외로 사용한 어린이집도 시설폐쇄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오는 6월 30일 시행됨에 따라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영유아에게 중상해를 입혔거나 보육료를 부

정하게 받은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어린이집이 통학버스 하차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아 영유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시설폐쇄나 1년 이내 운영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해당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매번 자격정지 2년의 행정처분도 가능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또 필요경비를 포함한 보육료를 부정하게 수급하거나 보육 목적 외로 사용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시설폐쇄 또는 1년 이내 운영정지 처분을 내리고 원장은 위반 때마다 1년 이내 자격정지를 받도록 조치했다.

어린이집 보육료 부정수급 등의 공표 범위는 1회 위반시 300만원 이상이다.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가 영유아를 학대해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혔을 때 이들의 자격정지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영유아 부모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신청 시 처리기한을 기존 30일에서 10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된다.

산후도우미 신청 소득 기준 폐지된다

모자보건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산후도우미 서비스 신청 소득 기준이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산후조

리 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소득 기준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가 태아 수에 따라 최소 5일에서 최대 25일간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의 정부 지원 기준은 지난 2016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2020년 120%로 확대됐다.

당초 지난해까지만 해도 정부는 2021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지원을 하기로 했으나 출산 지원 강화를 위해 기존 중위소득을 정하는 대신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구의 소득·재산 등을 고려해 이용대상을 정하도록 했다.

이중기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향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더욱더 확대해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문봉사단이 되어 나눔을 실천하세요! 지역사회봉사단!

1. 지역사회봉사단이란?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VMS)에 등록된 다양한 재능과 특기를 갖춘 봉사자들이 모여 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소외계층에게 지속적으로 맞춤형 봉사활동을 하는 전문 자원봉사단

2. 봉사단 위촉 기준

VMS 가입 5인 이상으로 구성되고 연 4회 이상 활동 가능 단체

3. 봉사활동 분야

구분	내용
기술·기능	디자인, 벽화봉사, 전기·가스점검, 집수리, 도배, 기능전수 등
상담·정보	법률 및 세무상담, 아동·청소년 등 상담(멘토링), 취업, 창업 등 각종상담 및 정보제공
운영·지원	재활도우미봉사, 재가대상·방문봉사, 행사, 프로그램보조봉사 등
문화·예술	음악, 연극, 무용진행 등 공연봉사, 지역문화축제, 지역주민 대상 행사진행 등
교육·학습	나눔·경제교육, 장애인·저소득층을 위한 수학, 영어, 국어, 한문 등 학습지도
노력·행정	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노력봉사, 청소봉사, 행정 및 사무지원 등
보건·의료	무료진료, 호스피스, 간병, 위문, 운동보조, 병원업무보조 등
교통·환경	교통정리, 차량이동봉사, 지역환경 개선, 재활용 및 환경관련 캠페인 봉사 등

4. 봉사단 혜택

- 활동재료비 일부 지원(중복지원 불가, 우수사회복지자원봉사 시상식 참석)
- 자원봉사활동 시간 인정
- 다양한 문화공연 초청(VMS, 복지넷)
- 참여 지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 및 홍보

5. 신청 및 문의

충북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과
김민지 대리

전화 043) 234-0840
홈페이지 www.cwin.or.kr



<월드비전 용암종합사회복지관>

아동권리위원회, 청주시의회에 정책 제안

직접 경험한 지역사회 문제·대안 담은 제안문 3건 전달 최종진 의장 “집행부와 적극 소통해 반드시 실현 노력”

월드비전 용암종합사회복지관 아동권리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청주시의회를 방문하여 최종진 의장에게 학생들이 직접 경험한 지역사회의 문제와 현실에 대한 진단과 대안을 담은 정책제안문 3건을 전달했다.

이날 방문에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활동한 학생 3명이 직접 참석하여 아동의 안전과 권리 증진을 위해 학생의 시선으로 느낀 문제점을 밝히고 위원회 활동을 통해 학생들 스스로 도출한 대안을 청주시의회에 전달했다.

아동권리위원회는 첫 번째 정책 제안으로 아이들의 안전한 이

동권 확보를 위해 학교 앞 불법 주차차 문제를 막을 수 있는 충분한 주차시설의 확보와 엄격한 주차단속을 요구했다.

두 번째 제안으로는 어른들이 무심코 밟는 욕설과 이유 없는 폭력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폭력예방 공모전 개최, 가해자 처벌 강화, 아동 보호자에게 아동 권리 교육을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 제안으로 학교 후 아이들이 마음껏 쉴 수 있는 다목적 공간을 설립하여 아이들이 건강하게 놀 권리와 쉴 권리를 보장해 줄 것을 제안했다.



월드비전 용암종합사회복지관 아동권리위원회는 학생들이 직접 경험한 지역사회의 문제와 현실에 대한 진단과 대안을 담은 정책제안문 전달했다.

정책 제안문을 전달받은 최종진 의장은 “의회에서도 아동 권리 증진과 보호를 위해 토론회 개최, 조례안 발의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오늘 받은 제안문은 아이들이 일상에서 실제로 필요하다고 느낀 부분을 직접

제안했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있다”며 “85만 청주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미래 세대가 제안한 정책들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옥천군·장애인복지관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지역 장애인에 맞춤형 서비스 제공... 146억원 투입 현재 실시설계 88%정도 진행... 2023년 1월 운영 목표

옥천군은 장애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복지관과 반다비체육센터를 건립한다고 16일 밝혔다.

장애인복지관과 반다비체육센터는 옥천읍 삼양리 일원에 각각 지상 5층과 4층 전체 면적 6390㎡ 규모로 건립한다.

장애인복지관은 사업비 146억 원을 들여 일자리지원실과 일상생활·직업적응 훈련실, 교육재활실, 심리안정실, 장애인주간보

호센터, 언어·미술 치료실 등을 갖춘다.

사업비 110억원을 투입하는 반다비체육센터는 수중운동실과 체력단련실, 탁구장 등을 갖춘 계획이다.

현재 실시설계가 88% 정도 진행돼 올해 하반기 착공할 계획이다.

오는 2023년 1월부터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군은 지난 11일 옥천군노인장

애인복지관 강당에서 기존 노인장애인복지관을 분리하여 신축할 ‘장애인복지관’과 동일 부지 내 새로이 건립될 장애인 체육센터인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김재중 군수는 “신축될 장애인복지관과 반다비체육센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옥천군민을 위한 통합 복지관이자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로 자리매김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1월 말 기준 옥천군내 등록 장애인은 5153명으로 인구의 10.2%를 차지하고 있다.

청주서원로타리 저소득 아동 신학기 물품지원

상급학교 진학학생 24명에 400만원 상당 기프트카드 전달 전국 ABC 매장서 사용 가능



청주서원로타리클럽은 2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충북지역본부에 400만원 상당의 ABC마트 기프트카드를 기탁했다.

청주서원로타리클럽은 지난 2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충북지역본부에 저소득가정 상급학교 진학아동을 대상으로 약 400만원 상당의 ABC마트 기프트카드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ABC마트 기프트카드는 전국 ABC마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충북지역 내 신학기를 맞이하는 저소득가정

초, 중, 고등학생을 24명에게 전달했다.

또 청주서원로타리클럽 오종혁 회장은 “정부차원에서 상급학교 진학아동을 대상으로 교복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외에도 아이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여전히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아이들이 새 신을 신고 행복한 새 학기가 되기를 응원한다”고 전했다.

“청주서원로타리클럽”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가정을 대상으로 명절을 맞아 식료품세트 지원 등 지역사회 이웃을 위해 꾸준히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다.

청주 가경초 등 5곳, 가경노인복지관과 업무협약

지역 초등학교에 어르신 파견 학교 화단조성·관리 등 운영 지역노인 사회참여 기회 제공



청주가경노인복지관은 청주시 흥덕구에 위치한 초등학교 5개소와 노인일자리사업인 ‘초록꽃밭사업단’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청주가경노인복지관(관장 박현주)은 9일부터 11일까지 3일 동안 청주시 흥덕구에 위치한 초등학교 총 5개소(가경초, 강서초, 서원초, 서경초, 복대초)와 초록꽃밭사업단(학교 화단조성 및 관리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청주가경노인복지관의 노인일자리 신규사업인 ‘초록꽃밭사업단’은 원예에 대한 관심이 많으며, 봉사정신을 가진 어르신들을 지역 초등학교에 파견하여 화단 조성 및 관리를 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지역노인의 사회참여

기회 제공 및 1·3세대 통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지역 내 초등학교와 지속적인 관계 유지 및 교류를 통해 지역노인의 긍정적

인 노인상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며, 지역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아동들의 정서함양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허창원 의원·김영석 회장 중앙물류센터 방문

(충북도의회)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허창원 의원과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김영석 회장은 17일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에 위치한 중앙물류센터를 방문했다.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허창원 의원과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김영석 회장은 17

일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에 위치하고 있는 전국푸드뱅크 기부식품 등 중앙물류센터를 방문했

담당자 격려·현장 점검

다. 전국푸드뱅크 기부식품 등 중앙물류센터 임재택 소장의 센터라운딩과 함께 기부절차, 품목 등에 대해 설명 듣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도내 기초푸드뱅크 6개소, 푸드마켓 4개소를 대상으로 기부식품 등 현장 배분이 이루어졌다.

허 의원과 김 회장은 배분 현장에 참석하여 담당자들에게 격려 인사와 함께 도내 기부식품 등 배분 현장을 점검했다.

허 의원은 “도내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이하 푸드뱅크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고생하시는 관계

자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충청북도 의회는 도내 푸드뱅크 사업이 점차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충청북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 조례를 제정해주시는 허창원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이 계기를 바탕으로 충북광역푸드뱅크에서도 도내 푸드뱅크 사업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충청북도 식품 등 기부 활성화 조례를 대표 발의하였으며 2020년 12월 31일 제정됐다.

한편, 2020년도 도내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배분실적은 약 125억원 규모이며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충청남도에 이어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전국 5위 규모이다.



중평군노인복지관은 독거노인에게 생일상을 지원하는 사업 ‘생일상은 사랑을 싣고~’를 실시했다.

중평군노인복지관 독거노인 월간 생일상 지원

‘생일상은 사랑을 싣고~’ 실시... 따뜻한 지역 조성 앞장

중평군노인복지관(관장 김용예)은 독거노인에게 생일상을 지원하는 사업 ‘생일상은 사랑을 싣고~’를 실시했다.

이번 사업 대상은 자녀가 없거

나 가족 관계가 단절된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이다.

노인복지관은 매월 생일을 맞은 독거노인 가정에 찾아가 노인복지관 직원들이 직접 만든 생

일상과 증평신협·파리바게뜨 증평점에서 후원한 생필품과 생일케이크를 전달한다. 또 전달시 안부 확인을 통해 독거노인의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정서적 소외감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지난 2월에 생일을 맞은 A씨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외부 활동이 어려워 더 적적하고 외로웠는데 이렇게 생일잔치도 해주고 몇 십 년 만에 처음으로 생일 선물도 받게 돼 너무 행복하다”며 기쁜 마음을 전했다.

김용예 관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관내 위기 및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정서적 소외감과 사회적 고립감이 심각해졌다”며 “앞으로도 지역 노인의 심리적, 정서적 지지를 위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에 앞장서 따뜻한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생애주기별 검색이 편합니다”

01 카테고리를 선택합니다

- 고용및직업
- 주거지원
- 보육및교육
- 의료및건강
- 요양및돌봄
- 정신및심리정서지원
- 문화및여가
- 권익보장및법률
- 일상생활지원
- 기타

02 지역을 선택합니다

- 청주시
- 충주시
- 제천시
- 보은군
- 옥천군

03 생애주기를 선택합니다

- 영유아
- 아동
- 청소년
- 성인
- 노인

04 서비스를 확인합니다

- 행정복지센터/노인돌봄서비스/종일/노인
- 노인종합복지관/9988행복나누미/종일/노인
- 노인요양병원/노인장기요양서비스/종일/노인

충북복지넷

www.043w.or.kr

서비스제공기관, 서비스명, 이용시간, 이용대상 까지 한번에 검색되는 ‘충북복지넷’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가능 사회’ 만든다

■ 보건복지부, ‘제4차(‘21~’25)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발표

임신·출생 전후 의료비 경감, 영아 수당 월 30만원 신설 등...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조성 등 4대 전략 추진 청년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기초연금지급대상 확대·노인 일자리 확대 등 고령자 기본생활 국가 책임 강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임신·출생 전후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0~1세 영아수당을 신설하는 등 영아기 집중 투자를 강화한다.

고령자가 살던 곳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기본생활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지역 사회 통합돌봄체계를 완성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을 확정했다.

이 계획은 2025년까지 추진될 인구 정책의 기반이 된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가능 사회’를 구현한다는 비전 아래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대응’과 ‘적응’의 두 측면을 균형 있게 병행하고자 했다.

■ 4대 추진 전략

1.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2.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3.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4.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2022년부터 영아수당 월 30만원 지급

일을 전제로 생애를 기획하는 남녀 청년세대들에게 결혼·출산이 장애가 되거나 일방의 부담으로 권결되지 않도록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여건 조성에 집중한다.

이를 위해 먼저 육아휴직을 활성화해 일·생활 균형 회복을 지원하고 아이와 함께하는 필수 시간을 보장한다.

현재 여성, 대기업 근로자 위주에서 남성, 비정규직, 중소기업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당연하게 사용하는 문화를 조성해 육아휴직자를 2019년 10만 5000명에서 2025년 20만명으로 2배 확대한다는 목표다.

2022년부터 생후 12개월 이하 자녀가 있는 부모 모두 3개월 육아휴직 시, 통상임금 내에서 각각 최대 월 300만원을 지원하고, 1개월 또는 2개월을 사용하더라도 부모 모두 육아휴직하는 경우에는 한 사람만 사용하는 경우보다 지원 수준을 대폭 확대해 부모 공동육아를 확산한다. 육아휴직 소득대체율도 4개월 이후 급여를 현행 통상임금의 50%, 월 120만원에서 통상임금의 80%, 최대 월 150만원으로 높여 휴직에 따른 소득 감소를 완화한다.

이 밖에 육아휴직에 따른 기업의 업무 공백, 비용 부담을 경감해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근로자가 만 0세 이하 자녀에 대해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육아휴직 지원금을 현행 3개월간 월 30만원에서 월 2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한다.

또한 여성이 결혼·출산에 따른 불이익 없이 지속적으로 자신의 경력을 유지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기업의 경영공시 항목 중 성별 고용정보를 ‘채용-입직원-임금’으로 체계화하고 비교해 공개 하도록 하는 등 성차별 예방 및 성평등 경영문화 확산 계기를 마련한다.

대표적인 여성집중 업종이자 저평가 분야인 돌봄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해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사회서비스원을 전국에 설치한다.

모든 아동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발달단계에 맞춰 아동 돌봄의 공공성·책임성을 강화하고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체계를 구축한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550개소씩 확대해 공보육 이용률을 2022년 3월 40% 달성 후 2025년까지 50% 달성한다는 목표다.

아동 발달을 고려해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적정화하고 시간제 보육 확충 등을 통해 다양한 보육수요를 반영하는 등 수요자 중심 서비스를 확대·강화한다.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결을 위해 학교 안·밖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활용해 돌봄을 지속적으로 확충, 잠재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노력한다.

놀이·심, 창의적 교육과정, 개별 학습지원, 유연한 공간 조성 등을 통해 충분한 교육 기회가 제공되도록 초·중·고교 혁신을 추진한다.

2022년부터 모든 0세, 1세 영아에게 매월 일정 수당을 지급하고 돌봄서비스 또는 직업육아 비용으로 부모가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2022년 출생아부터 월 30만원으로 시작해 2025년에는 월 50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현행 60만원에서 2022년 1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아동 출생·육아로 추가되는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2022년 출생아부터 출산 시 일시금 200만원을 신규 지급한다.

자녀 가구 지원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2025년까지 ‘아이 키우기 좋은 곳’에 다자녀가구 전용 임대주택 2만7500호를 공급한다. 이 외에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는 등 신속한 출생 신고를 지원하고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강화하며, 가정형 보호 확대, 전문가정위탁 정비 등 아동보호 체계를 강화한다.

‘건강 인센티브제’ 신규 도입

소득·돌봄·주거 등 기본적 삶의 영역에서 국가 책임을 지속 강화하고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에 중점을 둔다.

다중소득보장체계를 강화하고 노인 일자리 확대 등 다양한 방식의 노후생활 지원을 확대한다.

2021년부터 저소득 노인의 소득 보장을 위한 기초생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저소득 노인 약 15만 가구를 신규 지원하고 기초연금 30만원 지급 대상도 소득 하위 40%에서 70%로 확대한다.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적용대상 기업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한다. 또 2021년부터 주택연금 가입대상을 현행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 9억원’으로 확대하고 임대 활용, 신탁 방식 주택연금 등 운영방식을 다양화한다.

건강한 고령화를 위한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예방-조기 발견-치료·관리-돌봄의 내실화를 통해 치매국가책임제를 완성한다. 건강검진의 노인 검진 항목을 현행 ‘66·70·80세’에서 ‘80세 이후 계속되도록’ 조정하고, 건강고위험자의 건강 개선 노력에 따라 연간 일정액의 건강포인트를 지급하는 ‘건강 인센티브제’를 새롭게 도입한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방문형 의료서비스를 활성화하고 2022년부터 치매진료지침 표준화·검사비 지원을 15만원으로 확대하며 2023년에는 가족 상담수가를 도입한다.

한편, 건강·생활·주거 등 삶의 전반적 영역에 대한 통합적 돌봄으로 고령자가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22년 ‘지역사회통합돌봄법’을 제정하고 2025년까지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전국적으로 확산한다.

장기요양보험 수급 노인을 전체 노인 11%로 확대하고 통합재가급여 도입, 단기보호·돌봄 확대 등 재가서비스도 확대한다. 또한 공공 요양시설을 2022년까지 130개소 확충하고 전문성 강화와 서비스 질 제고를 추진한다.

생애말기 환자의 고통 경감 및 가족의 부담 완화를 위해 호스피스 서비스 대상 집합을 현재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4개 질환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연명의료 결정제도가 정착 및 활성화되도록 하며 웰다임 지원체계 법제화도 추진한다.

신중년 고용장려금 월40~80만원 지급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미래형 교육, 평생교육·직업훈련 등 인적 역량을 제고하고 의욕·능력 있는 청년, 여성, 신중년 등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구현에 중점을 둔다.

2025년까지 전체 고등학교에 고교 학점제를 도입하고, 콘텐츠·학습관리 시스템·학습도구 등을 하나로 연결한 K-에듀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 직업계고 취업지원관을 2022년까지 1000명 배치하고 신산업 특화 대학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등 전문인재로서의 성장을 지원한다.

청년이 기회를 보장받고, 자립·결혼·출산 등 중요한 생애과정을 포기하지 않도록 삶의 기본적인 자립 기반을 강화한다. 2021~2025년까지 청년 맞춤형 임대주택을 24만호 공급하고 40만 청년 임차가구에 금융지원을 하는 등 청년가구 주거를 지원한다.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저축계좌를 확대하며, 햇살론 유스를 통한 금융애로 해소·학자금 상환 부담 완화 등도 추진한다.

출산·양육기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를 확대하고 경력단절 여성 인턴 지원을 통해 여성의 경력 유지 및 재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신중년이 계속고용장려금,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등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근로형태를 확산한다. 신중년 적합 직무에 대한 고용장려금을 월40~80만원 지급하고, 전문인력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등 주된 일자리 퇴직 후에도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다양한 가족·아동에 대한 수용 제도화

다양한 가족, 연령 통합, 지역상생, 고령친화경제 등 인구구조 변화에 적응하면서 도약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사회적 논의 과정을 거쳐 사회시스템 혁신을 추진한다.

개인의 선택 존중 및 아동의 권익 보호를 위해 다양한 가족과 아동에 대한 수용을 제도화한다.

또 다양한 가족의 권리 보호를 위해 혼인·혈연 중심의 가족 개념 확장을 법제화하고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연령통합적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세대 간 이해와 연대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우리 사회가 지향할 연령통합의 의미를 설정하며, 생애연령기준, 부양-피부양의 개념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한 다. 사회의 연령통합 수준을 진단·평가할 수 있는 종합지표를 개발·보급하고 세대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다양한 노동을 포용하는 ‘전 국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개인 단위 사회보장제도로의 진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 고용보험 가입대상을 일하는 모든 취업자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상병수당 도입 방안 등을 검토한다.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제성과 사회보험기관 간 소득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비정형 근로자의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에 따른 지역 인구 고령화 및 지역 소멸 우려에 대응해 지역상생 기반을 구축한다. 지역 청년의 지역 내 자립을 돕기 위해 교육·사회진입 비용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활동 계좌제 도입을 검토하고, 지역공모 사업 우대, 주민주도 맞춤형 지원 등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2019년 통계청 장래인구 특별추계에 기반해 기존 저출산 예산의 절감분을 저출산 대응에 재투자하는 한편, 직접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 투입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예산 절감분 및 사업 효율성을 고려하여 재구조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출처:한국사회복지협의회 복지저널 VOL.150, 보건복지부〉

핵심정책 1 아이와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 "가장 중요한 영아기, 부모 모두 육아휴직 쓰세요"

부모 모두 3개월 + 3개월 육아휴직제

- 아이 만 0세 때,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3개월 간 각각 최대 월 300만 원(통상임금의 100%) 지원

육아휴직급여 인상

- 12개월 간 월 최대 150만 원(통상임금의 최대 80%) 지원

육아휴직을 보편적 권리로 확대

- 중소기업 사업주 육아휴직 지원 확대 (3개월간 월 200만 원, 인건비 세액공제 15~30%)
- 육아휴직을 특수고용직, 예술인, 플랫폼노동종사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모든 취업자의 보편적 권리로 확대



핵심정책 2 영아기 집중 투자 "임신, 출산, 육아의 부담을 덜어 드립니다."

모든 0세, 1세 영아에게 매월 영아수당 지급

- '22년도 출생아부터 가정에서 만 0~1세 아이를 돌보는 가구에 매월 30만 원 현금 지급
- '25년 월 50만 원 목표로 단계적 인상
- 영아수당은 아동수당과 별개로 추가 지급

첫 만남 꾸러미

- 임신 시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 100만 원 + 출산 축하바우처 200만 원 지급(일시금), '22년~



핵심정책 3 믿고 맡기는 촘촘한 돌봄 체계 "돌봄에 대한 걱정 없이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통해 공보육 이용률 50% 달성('25년)

학교 안팎의 다양한 자원 연계·활용한 온종일 돌봄 지속 확충('22년 53만 명까지 확대)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비율 조정, 시간제 보육·아이돌봄서비스 확대



핵심정책 4 다자녀가구 주거·교육 지원 확대 "다자녀 가구 지원기준을 2자녀로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주거지원 시, 다자녀기준을 2자녀로 확대

- 다자녀가구 전용임대주택 2.75만호 공급('21~'25)

일정 소득이하* 3자녀 이상 가구 셋째자녀부터 등록금 전액 지원('22년~)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20년 4인 기준 9,498,348원)



복지광장

팬데믹 이후, 충북복지의 길을 묻는 장(場)을 열어보자

복지포럼

복지 사각지대가 아닌 함께 어우러지는 곳, 중앙공원의 꿈



정 선 희

(사)충북여성인권상담소 상임대표

3월 11일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공식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팬데믹을 선언한 지 만 1년이 된다. 팬데믹 이후 빅데이터를 통해 언급된 키워드는 뭐가 있을까? 마스크, 국경폐쇄, 재택근무, 비대면, 위생과 방역, 거리두기, 집합금지, 종교, 집회, 혐오, 외국인, 백신, 돌봄노동, 고용,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요리, 배달, 영업제한, 생태계, 환경, 여성, 불평등 등이 있다. 팬데믹으로 안전을 위협받는 위기상황에서 우리는 과거에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비대면의 삶을 살아내고 있다.

눈을 뜨면 일터인 직장, 학교로 가던 당연했던 일상을 온라인 재택근무와 수업이 대신하고 있다. 위기 대응으로 방역과 사업장 폐쇄로 인해 자영업자들은 자산과 소득의 감소를 겪고 있다. 비대면 활동 증가는 고용감축과 해고로 이어졌는데 특히 임시직과 일용직의 불안정 고용층에게 더 큰 타격을 주었다.

팬데믹으로 인한 위기는 사회 약자층에게 더 가혹하다. 노인이나 장애인, 위기 가구에서는 늘 이용하던 복지관이 폐쇄되거나 이용하던 서비스가 중단된 이후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고동이 가중되고 있는지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할 여유가 없었다. 그렇지만 경험치상 알 수 있다. 기술 기반에 취약한 고령층, 장애인, 위기층들이 사회 복지 시설 폐쇄로 인해 팬데믹 이전의 삶보다 더 팍팍하고 고통스런 삶을 살고 있음을 현장 목소리로 예측할 수 있다.

학교 출석이 아닌 온라인 클래스 실시 이후 일반 아동, 청소년에 비해 취약 청소년들은 학습 격차, 생활지도, 영양 결손의 증가를 확인하게 된다. 정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돌봄에서 소외되어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폭력과 성착취 피해가 이전보다 더 증가할 수 있어 안타까울 뿐이다.

복지관, 학교, 경로당과 같은 시설 폐쇄로 이용자들의 돌봄은 가족 안에서 돌봄을 전담하는 여성들에게 독박 돌봄을 하게 했고, 이는 성별 억압과 성불평등 강화로 이어졌다. 고용상황 악화로 불안정 고용층의 수입이 감소는 가정에서 갈등요인으로 작용하며, 약자인 여성과 아동, 노인에 대한 학대피해 증가로 이어졌다. 매일 떠들썩해진 아동학대 사건을 통해 팬데믹 이후 위기와 불안의 시대에 얼마나 복지의 손길이 필요한지를 보여주어 주고 있다.

복지현장과 종사자들은 이런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 발생을 예측하고 복지서비스 개입이 더 필요함을 알기에 복지 현장의 고민은 깊어진다. 팬데믹 이후 기술사활 가속화 속에 오히려 기술의 수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더 많은 대면 복지서비스의 필요와 수혜 욕구는 증가할 것이다.

팬데믹이 이후, 복지 종사자들은 비대면 대체 서비스 발굴과 연결을 위해 수많은 아이디어와 이를 실현하기 얼마나 노력을 했던가?

“아! 테스트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세상은 왜 또 저래~”

나혼자가 부른 테스트형이 절로 입에서 흘러 나온다. 지난 일년간, 사회복지현장과 종사자들 모두 이전에 경험하지

않았던 삶을 살아내며, 새로운 복지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사회적 책임의식을 가지고 고통받고 희생을 치르고 있는 그들 옆에서 힘이 되고자 묵묵히 사회적 연대를 수행중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사회복지 기관에 대한 기술 지원 방법 모색, 개별기관에서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렵지만 꼭 해야 하는 언택트 상담 매뉴얼 제작과 보급, 대상별 효과적인 언택트 활용의 서비스 백서 모으기, 등 새로운 시도로 뉴노멀의 길을 만들어 나가는데 힘이 되었던 지혜를 모으고, 나누며, 활용할 수 있는 허브역할을 협의회에 기대해 본다.

새로운 시작, 3월의 봄맞이하며 여기 서 있다. 목련도 하얗게 피고 개나리도 노랗게 피고 앵두꽃도 분홍으로 피어 있다. 생명의 희망을, 시작의 설렘으로 내일을 두드린다.

사회복지사들은 팬데믹 이후, 사회복지현장에서 무엇을 고민하고, 질문하며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어떠한 노력과 지원을 바라는 것인가? 테스트형이 아닌 충북사회복지협의회에서 그 답을 같이 찾도록 모색해보자.

충북 복지계도 조속히 팬데믹 1년의 변화를 진단하고, 지역 내에서 당장, 그리고 가장 시급히 해야 할 과제를 선별하고 그 모색을 위한 길을 내는 심층적 고민의 자리 마련하기를 희망한다.



이 창 호

청주YMCA 사무총장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청주 YMCA의 바로 옆에는 청주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중앙공원이 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이곳 중앙공원에는 매일같이 300~400명의 노인들이 청주시내 전역에서 찾아온다. 면담위에서 더 나은 곳은 조치원, 신탄진, 증평, 진천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니 놀랍기만 하다. 코로나19 상황 이전에는 청주YMCA에서 매일 무료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는 운영이 중단되어 노인들의 식사 해결이 마냥 걱정 된다.

중앙공원은 코로나19 상황속에서 집합금지 구역임에도 연일 노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의자에 앉아서 친구들과 담소를 나누거나 일부는 여가지기서 옷놀이를 한다. 그것이 중앙공원을 찾는 어르신들의 낙이고 시간을 보내는 놀이다. 비나 눈이 많이 오지 않는다면 늘상 볼 수 있는 풍경이다. 그래서 이곳을 청주의 거대한 노인정이라고도 하고 청주의 탑골공원이라고 하는 이유다.

사실 중앙공원은 충청도 병마절도사영문, 망선루, 압각수, 임진왜란 때 공적을 세운 조현, 영규대사를 기리는 비, 대원군 척화비 등 유형문화재가 있는 역사공원이기도 하다. 네이버 지식백과에는 '문화유적과 즐길거리가 있는 휴식공간, 중앙공원'으로 소개하고 있다. 입구에 있는 시민들의 휴식처이며 '청주사랑 10선'으로 안내하고 있기도 하다.

경제신문 이투데이 게재된 '갈 곳 없는 노인들, 청주시 중심에 고립된 노인들의 섬 중앙공원'의 기사에 의하면 오근재 전 충청대 교수는 임연간이 된 노인들이 모여 있는 장소를 '퇴적공간'이라고 표현했는데 퇴적공간이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 노인을 사회적 타인으로 만드는 것으로 배려가 아니라 배제라고 주장했다.

'대한민국의 시니어들의 자화

상·내팽겨쳐진 노인들, 복지사각지대'라는 자극적인 제목이 거슬러긴 하나 벼랑 끝으로 내몰린 우리 사회가 포용하지 못하는 노인들은 퇴적 공간에서 유배된 신세로 전락했다고 마음이 불편한 기사를 써 놓았다.

청주시민들에게 중앙공원은 오기를 꺼려하는 곳이다. 특히 여성들은 더하다. 지역 상인들은 노인들이 공원을 차지하다 보니 시민들이 더 찾질 않게 되고 그 결과 상권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원인을 일부지단 돌리기도 한다. 시청공무원들은 공원 안에 있는 여러 문화유적들에 대한 관리로, 경찰들은 잦은 싸움과 고성방가 등 사행성 오락 단속으로 출동아 잦다.

2018년에 청주시노인종합복지관과 청주YMCA가 중앙공원을 이용하는 220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했다. 이에 따르면 중앙공원에 남성이 88.2%를 차지한다. 이 정도면 이곳은 절대적인 할아버지들의 놀이터라고 할 수 있다. 연령은 70대 이상이 73.6%를 차지하였으며, 독거노인 37%, 부부동거세대 40%로 나타났다. 또한 절반 가까이는 10년 이상 이곳을 찾고 있다고 하며, 매일 온다는 분도 2/3가 넘었다. 중앙공원을 찾는 이유는 산책이나 친구들을 만나 담소를 나누는 것이 대부분이고 옷놀이는 10%에 그쳤다. 이곳을 찾는 이들은 중앙공원만 이용한다는 분이 41.6%가 되지만 주변의 시설에서 할인혜택이 주어진다면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74.7%가 응답했다. 그러나 그 중 절반은 3,000원 미만 정도로 큰 금액을 지출할 의사는 없었다. 특이한 점은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분들도 30.8%나 되고 자가용을 이용해 오는 분들도 있다는 점이다.

김지혜 저자의 <선량한 차별주의자>중에서 차별을 보지 못하는 '선량한 차별주의'가 익숙한 일상에서 불평등이 보이지 않는 착시 현상으로 '서는 곳이 바뀌면 풍경도 달라진다'고 했다. 마냥 밖에서만 보이는 퇴적공간이라는 중앙공원도 점차 바뀌고 있다. 환경도 바뀌고, 아동·청소년들의 역사의 학습현장으로, 이용하는 사람들도 바뀌고, 문화도 조금씩이지만 바뀌고 있다. 복지의 사각지대, 배제의 공간이 아닌 함께 소통하고 어우러지는 한마당이 되어야 하겠고 만들어야 할 책임을 느낀다.

하루빨리 중앙공원에 길게 늘어선 배시 행렬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희망한다.

현장의 목소리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



원 이 레

청주시서원정신건강복지센터 사회복지사

세상에는 불안한 요소들이 많다. 지금 당장 앞에 놓여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나를 불안하게 만든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그 불안에 더 취약한 사람들이다. 작은 변화를 통해 기쁨을 얻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평온함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꽤 많다.

"우리는 왜 불안할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스스로에게 질문해 봤다. 정해진 정답은 없지만 내가 내린 정답은 이렇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행을 원하는 사람은 없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 지금 그 행복을 쫓아가다가 불안에 떨며 더 불행해지고 있는 것은 않은지 되짚어보고 가야 한다.

나는 오늘도 불안정한 사회에서 늘 불안에 떨며 나보다 더 불안에 취약한 사람들을 돕고 있다. 그들은 나의 입을 통해 관찰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고 나는 그 말을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해서 이야기해 줬다. 걱정이 많은 편인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공감하고 함께 위로받았다. 기왕 돈을 벌면서 일을 해야 한다면 남을 도우며 선한 일을 하고 싶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쉽지 않았다. 많은 것을 알아야 했고 많은 것을 참아야 했다.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만났을 때는 더 큰 걱정의 늪에 빠져 헤어 나올 수가 없었다. 다른 기관이나 센터에서 지원 사업 조건에 해당이 되지 않아 마지막 종착지인 우리 센터에 도착한 느낌이였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들어주는 것 밖에 없었다. 일을 하면서 무능력함을 느끼는 잘나 과분한 말들을 많이 들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심지어 소방관이나 의사들만 들을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했던 "저를 살리셨어요." 라는 말을 듣고 너무 부끄러워 케비넷에 들어가 숨고 싶었던 적도 있었다. 노력한 것보다 더 값진 것을 받는다는 것은 내 양심에 찔리는 일이었다.

일을 하면서 회의감을 느낀 적도 많았다. 아마 많은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느끼는 감정이라고 생각한다. "세금 받으면서 앉아서 논다", "내가 입 뺏겼으면

너희는 다 모가지가 날아간다"와 같은 말은 나를 지치게 하는데 충분했다. 그 지친 마음을 알았는지 옆에 있는 동료 선생님은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내며 커피를 건네준다. 그 위로가 없다면 벌써 무너졌을 지도 모르겠다.

사람을 돕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누구나 하지 않는다. 나는 돈을 벌면서 다른 사람을 돕고 있지만 돈을 받지 않고도 남을 돕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 봉사단은 기획하였고 연탄봉사, 요양시설 청소봉사, 환경봉사 등을 충북사회복지협의회와 도움을 받아 진행할 수 있었다. 나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생각에 큰 기쁨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더 큰 감동을 받았다.

올해도 사단법인 정경다리에서 사랑의 빵 만들기 봉사가 예정되어 있고 작년과 같이 충북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연탄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봉사단원들도 많이 기대하고 있고 주책맞은 나는 이 글을 쓰며 벌써 심장 박동 수가 빨라짐을 느낀다.

나를 챙기고 그 후 남을 챙기는 것이 베스트 오브 베스트인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자신은 아프지 몰랐던 사람들이 내 주변에는 꽤 많다. 취약계층 사람들을 돕다가 정신과 상담을 받게 된 선생님, 우울증

환자를 돕다 어느 한 선생님은 우울증을 경험하게 된 적도 있었다. 다른 사람을 돕기 전 나 그리고 우리 동료를 챙겨야 한다는 것을 많이 느꼈다.

이 일을 하며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 남의 일인데 본인에게 해가 되어도 선뜻 도와주는 사람, 세심하게 챙기며 공동 일도 나의 일처럼 하는 사람, 같이 울어주고 웃어주며 가족이 되어주는 사람, 선생님처럼 올바른 길을 알려주는 사람, 모두가 함께 융화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람 나는 사람 복이 참 많은 사람이란 것을 느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받았던 많은 복을 나누며 살아가고 싶다.

처음 칼럼을 쓰면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지 참 고민이 많았다. 나보다 더 많은 경력과 대단한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이 좋은 기회를 잡아도 되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동시에 나에게 다시 오지 못할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염치 불구하고 기회를 잡게 되었다. 이 값진 기회를 빌려 내가 일하면서 느꼈던 내용과 그동안 고마웠던 선생님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하고 싶다.

각자 다른 장소에서 다른 빛을 내며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선생님들께 이 글을 바치고 싶고 마지막으로 제 역량과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펼쳐 볼 수 있게 도와주신 신정인 팀장님께 감사함을 전하고 싶다.

법률복지의 새 장을 여는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 안내

법률상담서비스

변호사의 자격을 갖춘 법조인이 충북사회복지협의회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을 비롯한 서민에게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서민 법률복지"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법률상담 및 정보제공과 법교육, 구조알선과 법률문서작성 등 소송 수입 없이 가능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제공대상

기초수급자,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법률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지역주민,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도움 받을 수 있는 분야

근로관계 및 임금, 채권 및 채무, 상속 및 유언, 이혼·친권·양육권, 손해배상, 개인회생 및 파산 등 생활법률 전반입니다.

법률서비스 제공

신인정 변호사(법무부 인권구조과)가 담당합니다.

서비스 신청은

시 간 : 월~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공휴일 제외)
전 화 : 043)238-0843 / 이메일 : colt0914@gmail.com

사무실 :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300호 법률상담터



법무부



충청북도



SSN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이 달의 법률상식



신인경 변호사 (법무부 인권구조과)

Q. 상가 임차인 A는 임대하려는 임대점에 기존 시설이 어느 정도 설치되어 있었고 그 기존의 시설물을 그대로 인수받아 임차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시설에 자신의 비용으로 추가적으로 시설을 하여 영업을 하였는데 이후 임대기간 만료 후 임대인 B는 A에게 처음 점포 인수 시에 있었던 기존 시설물까지 포함하여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의 원상회복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A. 상가 임대차 표준계약서는 임차인의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원상회복의무에 관하여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임차 상가건물을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고 이와 동시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간단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는 최종 준공 상태의 건물에 임차인이 영업을 개시했다면 건물 처음의 상태로 되돌려야 한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 임차인이 사용하던 건물을 그대로 인도받아 건물을 사용한 경우는 현재의 임차인이 직접 시설하지 않은 부분까지도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될 지 명확치 않으며 대법원 판례 역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다른 특약이 없는 한' A씨의 경우와 같이 자신이 직접 시설한 범위 내에서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면 되고 전 임

차인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계약 관계에 따라 원상회복의무를 범위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어 후속임차인이 임대인과 완전히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A씨의 경우처럼 직접 시설한 것에 한해 원상회복의무를 지지지만 임대차계약기간 도중 임차인의 지위를 이전 받은 형식으로 동일한 임대차계약을 이어 받았다면 전 임차인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의무를 지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상회복의무에 대해 서로 이견이 발생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반드시 특약사항에 원상회복의무를 자세히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복지정보 제공

[청주YWCA여성종합상담소]2021성폭력상담원교육과정 수강생 모집

- 대상: 성폭력 문제나 상담에 관심 있는 사람
접수기간: 2021.3.24.(수)~마감시(선착순)
교육기간: 2021.6.3.(목)~7.15.(목) 목, 금: 18:00~22:00, 토: 09:00~18:00
접수방법: 이메일(cjc3007@hanmail.net)
안내 및 제출 서류: 상담소 홈페이지(http://i-web.kr/cjwomen)
문의: 043-268-3007~8

[코아드]코아드 자문료 무료설치 캠페인

- 접수기간: 상시접수
신청대상: 사회취약층을 위한 시설이라면 제한없이 신청 가능
신청방법: 코아드 홈페이지를 통해 사연 접수하면 완료(www.coadoor.com)
신청방법: 매일 25일 접수 받은 사연을 검토하여 매일 1곳 선정
안내문의: 189-7081 또는 coad@coadoor.com 으로 문의 가능

[여송사회복지재단]함께독서' 도서 무료배포 안내

- 보급대상: 사회복지관련 기관 및 시설
보급권수: 17기관 최대 2권까지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childlovesky@hanmail.net)
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도서 보급 공지사항-신청양식 확인-이메일 발송
신청기간: 수시
배송관련: 택배비 기관 부담(착불 4,000~4,500원)
유의사항: 기존에 신청한 기관은 제외
문의: 여송사회복지재단 사무국 ☎ 02-553-3488

[바보의나눔]코로나19 관련 cpbc라디오 모금 방송 사연 대상자 추천 안내

- 방송명: cpbc라디오(평화방송) 힘들면 전화해
방송일시: 매주 월~토 15시~16시
방송내용: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

- 고 있는 이웃의 사연을 소개하고 ARS 및 무통장 모금 진행 (방송일로부터 2주일)
진행 과정: 사연대상자 추천서류 메일접수 → 사례 선정 여부 안내 → 방송 녹음 진행(대상자/기관 담당자) → 방송 및 모금 진행 → 모금액 집계 및 지급 → 사용 완료 후 결과보고서 제출
제출서류: 신청공문 및 대상자 추천서(양식참조), 통장사본 각 1부
제출기한: 상시접수(2주에 사연자 1명 방송)
기타: - 모금액 전액을 대상자에게 지급함(ARS 수수료분 제외)
- 사연 대상자 추천은 사례관리 가능한 기관의 추천에 한해 접수(지역제한 없음)
- 라디오 방송으로 대상자의 목소리가 노출됨(가명 사용) → 대상자 동의 필수
문의: 나눔사업팀 하서이 (02-727-2511 /apple@babo.or.kr)

[KT&G복지재단] 2021년 수리소리마소리(청각장애인후원사업) 후원금 신청안내

- 신청대상: 사회복지기관에 소속된 저소득 청각장애인(수급자, 차상위, 일반저소득)
지원내용: 청각장애인에게 필요한 후원물품(※기관사입비, 기관후원물품 제외)
지원절차: 후원금 신청 및 서류접수(매월 1일 ~ 20일)→신청발표(매월 마지막주)→선정기관에 후원금 입금(2주 이내)→후원금 사용내역 결과보고 제출(1개월 이내)
제출서류: 홈페이지 (www.ktnwelfare.org) 참조
지원금액: 보청기, 인공와우 소모품 등 후원물품 구입비 최대 200만원 지원

[KT&G복지재단] 2021년 행복가정학습지원(아동) 신청안내

- 신청기간: 매일 1일 ~ 20일, 연중상시 진행
신청대상: 저소득 (차상위, 수급, 일반저소득) 가정의 학령기 아동·청소년 (만7세 이상 ~ 만18세 이하)
지원내용: 학습과 관련된 물품 구입비 10만원 지원

- 지원가능물품: 학습품, 문제집, 일반도서, 교복, 책가방, 체육복(학교지정), 실내화 등
신청발표: 매일 마지막주 중 발표
지원시기: 선정발표 후 2주 이내, 기관명의 후원금 통장으로 입금
신청방법: 매일 20일까지 온라인 사연신청 (복지기관을 통한 신청만 가능, 개인신청 불가)
참고: www.ktnwelfare.org

[굿네이버스]신한금융그룹 지정가정 '위기가정 재기지원사업(3차년도) 사업 안내

- 사업기간: 2018년 5월 ~ 2021년 4월 (상시신청)
신청대상: -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위기상황에 처한 개인 및 가정
- 희생정신을 발휘하여 위기에 처한 사람을 도운 개인 및 단체
신청기준: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신청방법: 거주지역 내 신청기관을 통해 신청(개별신청불가)
*신청기관: 굿네이버스 사업장, 사회복지유관기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공공기관, 병원, 학교 등 (단, 지원금 관리 등 사례관리 가능 기관)
지원항목: 생계주거비, 교육양육비, 의료비, 학대피해지원, 재해·재난구호비, 희망영웅)
문의: 위기가정 재기지원 사무국(월~금 10:00~17:00, 02-6424-1551)
참고: www.shinhan-hope.com

[아산사회복지재단]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돕는 'SOS 복지지원사업' 안내

- 대상: 제도적 한계로 인해 정부나 민간단체 지원이 신속히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생계비, 주거비 등을 지원
신청기간: 연중상시
신청방법: 아산사회복지재단 홈페이지(www.asanfoundation.or.kr) 신청서 작성 이메일접수(asan-sos@amc.seoul.kr)
문의: 02-3010-2566,2585

자원 봉사자 모집

▶ 공원어머지기 봉사
관리센터: 청주서원노인복지관
활동기간: 3.1~4.30
전화번호: 043-238-3786

▶ 가정방문 심리상담 봉사
관리센터: 청주상당노인복지관
활동기간: 3.1~4.30
전화번호: 043-288-3060

▶ 유아성폭력에방인형극 공연 봉사
관리센터: 굿네이버스 충북지부
활동기간: 3.1~4.30
전화번호: 043-288-9601

▶ 말반찬 배달 봉사
관리센터: 청주종합사회복지관
활동기간: 3.1~4.30
전화번호: 043-266-4761

▶ 초등학생 학습지도
관리센터: 한빛지역아동센터
활동기간: 3.1~4.30
전화번호: 043-855-1090

▶ 도서관 도서 정리
관리센터: 충청북도교육도서관
활동기간: 3.1~4.30
전화번호: 043-267-4590

▶ 행정업무보조 봉사
관리센터: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활동기간: 3.1~4.30
전화번호: 043-239-8900

▶ 저소득 가정 11 멘토링
관리센터: 충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활동기간: 3.1~4.30
전화번호: 043-857-5960

지역사회봉사단 모집
관리센터: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활동기간: 연중
전화번호: 043-234-0840~2

▶ 이마음 봉사
관리센터: 즐거운생활재가노인복지센터
활동기간: 3.1~4.30
전화번호: 043-216-1365

▶ 수영 동아리활동 봉사
관리센터: 청주정신건강센터
활동기간: 3.1~4.30
전화번호: 043-286-4736

*자료출처: www.vms.or.kr

지역사회봉사단

다사랑회, 한글·한자 교육 진행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영석) 소속 다사랑회(회장 김정숙, 이하 다사랑회)는 지난 22일

충북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봉사단으로 위촉되어 주기적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해 오고 있다.

김정숙 회장은 "매주 활동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배움에 즐거움을 느끼시는 대상자들을 보며 보람을 느끼게 된다."며 "앞으로도 봉사에 열심히 임해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지역사회봉사단은 VMS에 가입된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봉사단체로,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봉사활동이 가능하다. 지역사회봉사단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는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유선(043-234-0840~2) 또는 이메일(cbssn@naver.com)을 통해 문의 가능하다.

2021 따뜻한동행
침단보조기구
지원사업

장애인 당사자가 우리사회 리더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본 사업에 많은 신청바랍니다

지원대상

- 성장 가능성이 높은 역량 있는 20~30대 장애인(만40세 이하)
- 성장의 잠재력이 있는 장애 아동·청소년

지원내용

장애유형별 맞춤형 침단보조기구 지원 (당사자 및 전문가 협의를 통한 지원품목 결정)
※ 단순 이동 목적의 수동 및 전동휠체어 지원 제외

접수기간

2021년 2월 26일(금)~5월 31일(월)

신청방법

따뜻한동행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www.walktogether.or.kr)

문의

따뜻한동행 070-7118-1937



복지/만/평

협응

이창신 www.bokmani.com

예전엔 사회복지사에게 뜨거운 가슴을 가져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사랑 " " 희생
헌신 " " 봉사

요즘엔 사회복지사에게 차가운 머리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평가 : 계획
측정 : 관리

복지는 가슴이 시키는 일을 머리로 해야 합니다.